



관음보살 이마 밑에 연잎바위, 연봉이 피어있다. 크기가 성인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부처님 꽃이 연꽃인데 2003년 6월 부터 부처님 주변에 화사하게 피어있다. 연꽃 바위가 관음보살 발밑에 피어있는 모습.

거북이로 화현한 듯 거북삼순동자가 관세음보살님 이마를 향하여 업드려 있다

觀音聖地 休休庵 破億劫 沈黙 海中智慧 觀世音菩薩 現身 道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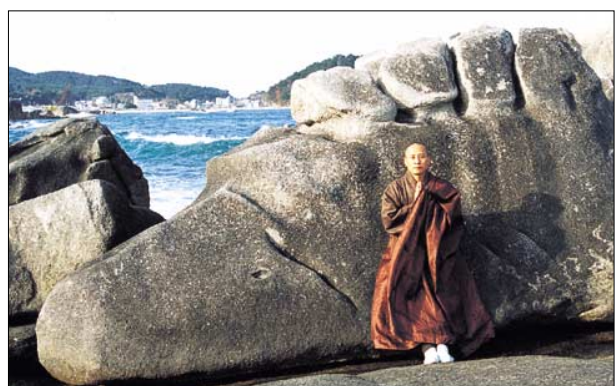
휴휴암(休休庵)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팔만사천 무진번뇌 망상을 모두 놓고 쉬고 또 쉬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쉬는 사람이 묘적전(妙寂殿)에서 기도를 드리면 묘하게 그 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묘적전이라 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사부대중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휴휴암이 지어진지 10년이 되었고, 5년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관세음보살상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가슴에는 감로수 병처럼 바위가 튀어나와 있으며, 발밑에는 좌대바위가 있고 이마 칸에는 일곱 사람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

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연잎바위가 있다. 또 발 옆에 연꽃 모양으로 바위 꽃이 3년 전부터 피기 시작하여 불수록 계속 또렷해지고 있다. 5년 전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날 관음성상에 점안을 해 드렸다. 전날 철야기도부터 승용차는 물론 대형버스가 1백대 넘게 와서 성황리에 점안식을 마쳤다. 흥법주지스님은 "휴휴암에도 사람 좀 많이 오게 해 주시라고 천일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관세음보살님



◇연화법당 발가락 바위앞에서 합장하시는 휴휴암 주지스님.

의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이 여실히 증명 된 것"이라며 찬탄 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휴휴암 앞바다에 떠올라 계시는 해종지해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연화법당에서 기도드리고자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불자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휴휴암 사부대중은 요즘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讀) 천일철야 정진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경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원력으로 이루어진 신묘한 진언이다. 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드릴 때는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빠뜨리거나 틀리지 않게 천천히 열불수행을 쌓아가면 업장은 스스로 소멸되고 산만한 마음이 정화되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력으로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다라니 주력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한 사람은 신통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쳐도 신통의 힘을 받으며 대다라니 그 자체에서도 신통력이 나온다고 했다.

모든 번뇌 쉬면 몸도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흥법 주지스님은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과거 오랜 겁 전에 초지보살로 계실 때 천광왕정주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듣고 팔지 보살의 높은 경지에 경중 뛰어 지금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님이 되신 것입니다. 초지에서 팔지에 이르러면 수만 겁을 뛰어오 어려운데 다라니 법문 한 번 듣고 수행정진 하여 지혜가 열리고 신통력이 갖추어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몸은 자마금색이며 열광빛은 염부단금 빛과 같이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미간의 백호상에 서는 팔만사천 가지가지 빛이 쏟아져 나오고 그 빛 속에 비치는 중생들을 살피고 제도하시는 대성자도 관세음보살님을 알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장에 가서 과일과 나물을 사서 지계에 지고 산을 올라와 공양을 지어 상단부터 일주일씩 각단마다 기도드리고 다시 삼칠일기도와 백일기도, 다라니 백만 독 천일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천만 독 원을 세우고 주력 정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휴암 해종지해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은 휴휴암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15,000원

다라니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느 단계만 지나면 편안해지고 신심이 철로 나서 기도 성취가 빨리 옵니다. 다라니진언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하게 되면 식이 맑아져서 귀신이나 천신들이 보이는데, 이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심의 감응을 두텁게 입고 그 어떤 유혹이나 실험을 당해도 물러서지 말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를 여러 번 드린 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친견하였습니다. 휴휴암에서도 기도 중에 두 번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후로 바다에 무지개가 자주 뜬 자리를 살펴보니 관음성상이 물위에 떠올라 쉬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라며 대다라니 진언의 소중함을 설화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다라니의 기도에 관한 흥법스님의 원력은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이라는 책으로 표현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속에 폭 빠져 지나다 보니 다라니에 나오는 불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불화가 아닌 것이 안타까워 하다가 원을 세우고 다라니 글법당을 10년 만에 완공하여 불보살세계를 고려불화

로 그려모시고,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드리시는 불자들을 위해 이책을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료를 모아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수다라니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아첨저녁으로 지송하는 소중한 경문입니다. 모든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밀한 진언을 외우고 간직하며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이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면 불보살세계를 체험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라니 춤을 만들어 연습 중에 있으며 완성되면 참신한 불자들에게 전수하여 사찰이나 세간 곳곳에서 한가로운 다라니 춤을 추며 마음 닦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해안 기도성지로서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 휴휴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휴휴암, 관세음보살님의 큰 원력으로 쉼터를 찾게 될 것이다.



휴휴암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0095